‖제20회 정순왕후 선발대회 서류심사평‖

제20회 정순왕후 선발대회에 총 8개 시·도에서 33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3인으로 구성된 정순왕후 예비심사단이 신중한 논의 끝에 16명의 제20대 예비 정순왕후를 선발하였습니다.

정순왕후 선발대회의 대회 취지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연대는 우리의 힘”이라는 올해 주제에 맞추어, 정순왕후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역사적 소양과 진취성을 겸비한 참가자 중심으로 본선 참가자를 가렸습니다.

서류심사로 선발된 16명의 본선참가자는 정순왕후라는 인물에 대한 자신만의 유의미한 해석을 통해 그 시절 ‘미망인’으로 박제된 정순왕후라는 인물을 현대적 의의가 있는 여성리더로서 발견해내고자 하는 성찰적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여러 시군에서 많은 참가자가 접수되어 정순왕후라는 여성인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국적으로 높아진 선발대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관단체인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와 영월문화재단은 이러한 성원을 보여주신 모든 지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장 / 영월문화재단 이사장